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 344-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7년 6월 5일 월요일 (음 5월 11일) 제1820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우박 피해농가 현장 방문
지난달 31일 지름1~2cm 기록적인 우박이 발생해 도내 농산물이 피해를 입은 가운데 지난 2일 송하진 도지사가 순창군 북쪽면 이희관씨 농가를 방문해 피해 농작물인 매실, 담배잎, 오미자등을 농작물 피해 상황을 살펴보고 농가에로사항을 듣고 있다. <관련기사 2면>

社 告

제7회 전국 청소년 마술경연대회

일시: 2017년 6월 10일 (토) 오후 4시
장소: 전주 풍남문 광장

전주매일신문이 청소년들의 끼와 재능을 마음껏 발산시키고, 이들의 건강한 놀이문화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제7회 전국 청소년 마술경연대회'를 오는 10일 전주 풍남문 광장에서 개최합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주최: 사한국청소년동아리 전주시연맹
- ▲주관: 사한국청소년동아리연맹, 전주매일신문사
- ▲후원: 전주시
- ▲문의: 전주매일신문 문화사업국(063-288-9700)

전주매일

정부, 새만금 추진기구 청와대 신설 공식화 신항만 등 인프라 구축 '속도'

도, '환영' 일색 후속작업 추진

정부가 지난 2일 문재인 대통령의 전북지역 대선 공약이었던 청와대 내 새만금 추진 기구 설치 방안을 공식화했다.

이 문 대통령은 취임 2월 만에 나온 것으로 새만금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는 등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으로 보여 전북 도민의 기대감을 한층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은 정부의 방침을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작업에 들어갔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이개호 경제 2분과 위원장은 이날 "새만금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청와대에 새만금 관련 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새만금개발청 업무 보고회에서 이 같이 말하고 "전북도 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신항만과 국제공항, 배후단지 등 필요한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해 개발의 촉매제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아울러 "새만금개발청도 더욱 긴장하면서 이번에는 정

말 새만금 제대로 되어야 한다는 가오를 다져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의 전북도 대선 공약을 실현시키는 정부 실무 관계자의 첫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청와대 정책실을 중심으로 직접 새만금을 챙기겠다"고 말했다.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은 즉각 환영 입장을 밝히고 정부의 방침을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작업에 들어갔다.

최병관 전북도 기획관리실장은 "대통령의 약속이 실무진 차원에서 실현되는 가시적인 현상"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최 실장은 "기구의 위상과 인선 등에 대해 전북도의 입장을 정리해 청와대에 제출하고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새만금개발청의 김형렬 차장도 "정부의 뜻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이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새만금개발청의 또 다른 관계자는 "개발청은 이미 대통령 공약 사안에 따른 내부 준비를 해왔고 이날 업무 보고는 비공개인 만큼 내부 준비도 아직 밝힐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가람 '삼인시조집', 67년만에 찾았다

전북대, 이병기 선생 기리는 '전집' 간행 도중
익산에서 가람 문학관 건립 추진 과정에서
유물 정리하다 유실된 줄 알았던 시조집 발견

가람과 가까이 하던 조운 등과 함께 만들어
현대시조로서는 당대 최고 수준 평가 받아

전북대학교가 올해 개교 70주년을 기념해 가람 이병기 선생을 기리는 '가람 이병기 전집' 간행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그간 유실된 줄 알았던 가람의 시조집이 67년 만에 발견돼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1951년 10월 15일, 가람 선생은 하루 종일 서적을 정리하면서 "조운(朝雲), 남령(南嶺), 가람(嘉蘭)의 '삼인시조집(三人時調集)' 원고가 없다"는 기록을 '가람일기' 해당 일자 일기에 남겼다. 그 후에도 가람은 이 시조집을 애타게 찾았으나 결국 발견되지 않았다.

이 시조집은 전북대가 개교 70주년을 맞아 가람의 문학과 학문을 집대성

하고 그의 문학혼을 기리기 위해 '가람 이병기 전집'을 간행하고 익산시에서도 가람 문학관 건립을 추진하면서 관련 자료 및 유물 등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

즉 가람 선생의 후손이 가람 문학관 전시 유물 확보를 위해 선생이 남긴 여러 유물들을 정리하다가 유실된 줄로만 알았던 이 시조집을 우연찮게 발견해 익산시에 기증하게 된 것.

'현대시조 삼인집(現代時調三人集)'이라 명명된 이 시조집은 가람과 가까이 하던 조운, 조남영과 함께 만든 당대 최고 수준의 현대시조집이다. 이 시조집에는 가람 시조 36수, 조운 시조 29수, 조남영 시조 15수 등 총 80수



가람 이병기 선생의 '삼인시조집'

가 실려 있다. 이 중 새로 발표된 원시조도 가람 시조 16수, 조운 시조 7수, 조남영 시조 9수 등 총 31수나 된다.

가람과 조운, 조남영은 시조를 통해서도 가깝게 교류하던 사이였다. 가람은 조운이 창립한 '추인회'의 초창으로 조운의 고향 영광을 내왕하였는데 1927년 조운은 가람 이병기를 초청, 영광 읍내와 불갑사 등지를 탐승하면

서 '한글강습회'와 시조강좌를 개최하였다. 그 후로도 이 두 사람 사이에는 깊은 교분이 이루어졌으며 함께 신재호의 관소리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였다. 조남영 또한 영광 출신으로 가람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문장' 지로 등단한 사이였다. 이들 사이의 교류는 '가람일기'의 내용을 통해서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서로 교분이 깊었던 우리 현대 시조 전기의 세 시조시인들이 함께 엮은 '현대시조 삼인집'의 발견으로 당대 최고 수준의 현대시조를 살펴볼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조운과 조남영은 월북 시조시인으로(조운은 1949년, 조남영은 6.25 무렵 월북), 이들의 월북 직전 미발표 작품들이 전해지게 되어 그 의의가 더욱 크다. 학계 역시 해방 전후 한국 현대 시조사의 주요 자료 확보라는 점에서 한국 문학사에 매우 큰 의의가 있다고 말한다.

한편 이 미발표 '현대시조 삼인집'은 올해 전북대 개교 70주년 기념일인 10월 15일을 즈음해 간행될 '가람 이병기 전집' (전 2권)에 수록될 예정이다. /정해은 기자

진안고원의 **진안 홍삼**

이래서 다릅니다

- ✓ 전국유일 홍삼특구!
- ✓ 세계유일 홍삼명인!
- ✓ 지리적표시 단체표장등록 진안삼 사용!
- ✓ 국가지정 홍삼연구소의 성분검증!
- ✓ 진안군수 품질인증!

대한민국 홍삼특구 '진안홍삼'
2017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3년 연속 수상

대한민국 홍삼특구 진안홍삼 · Korea Jinan Hongsam www.jinansam.com 사)홍삼한방클러스터사업단 063-433-8398

진안홍삼연구소가 검사, 관리하고 진안군이 품질을 인증한 제품에만 사용되는 **마크**입니다.